

5월 지육시세는 3,550원/ kg 예상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마을 모돈계열팀

한·미 FTA 타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그리고 무역관세 철폐 등 굵직한 양돈뉴스들이 양돈 농가들의 시름을 더 한층 크게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양돈 농가와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뉴스는 금년 들어 돼지고기는 1/4분기 동안 전년 동기 보다 87% 신장한 53,153톤을 수입 하였고 쇠고기 수입은 전년 동기 보다 73%증가한 61,488톤을 기록하여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

금년 1/4분기 동안 돼지 도축두수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98,103두를 증가한 3,392,729두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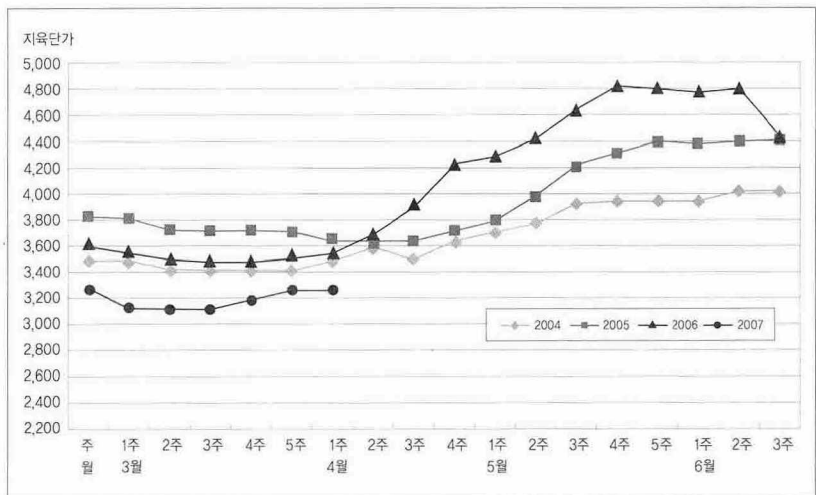
돼지고기 중 국내 생산량으로 공급이 증가된 정육 물량은 약 5천 톤쯤 된다. 이에 비하여 돼지고기 수입 증가량은 전년 동기 보다 24,133톤이고 수입쇠고기 증가량은 25,966톤을 기록하고 있다.

금년 1/4분기 동안 공급된 국내 돼지고기 공급량을 추정하여 보면 국내산 16만8천 톤과 수입산 5만3천 톤을 합한 22만1천 톤으로 전년 동기 국내산 약 16만3천 톤, 수입산 2만9천 톤을 합한 19만2천 톤보다 대략 15.1%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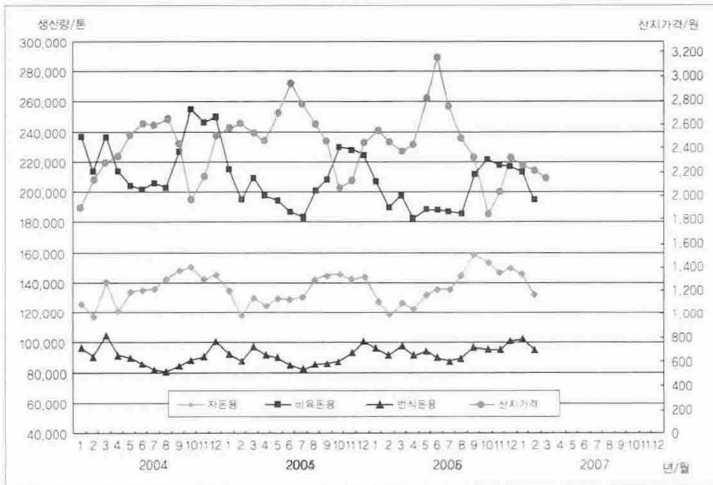
현재 돈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전년 동기 보다 공급 정육 물량이 약 2만9천 톤 증가한 것인데 이러한 증가분에서 수입량의 증가는 국내산 증가의 약 5배를 차지하면서 국내산 돈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 관세 22.5%가 유지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미국의 광우병 문제로 중단된 상태 하에서도 미국의 돼지고기는 2006년 1년 동안 28.9% 차지한 60,849톤으로 돼지고기 수입국 중에서 수입물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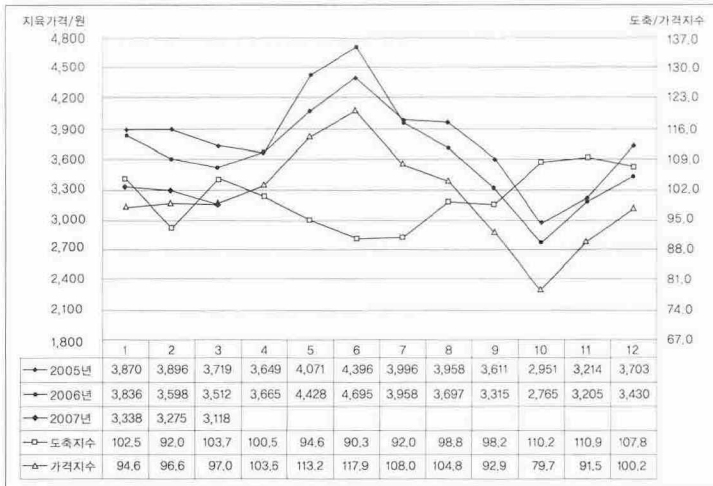
한·미 FTA가 발효되어 관세가 철폐되고 광우병 발생으로 중단되었던



<그래프 1> 전국 도매시장의 최근 4개년간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래프 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동향



<그래프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지가격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년 1/4분기의 육류 공급량을 살펴 볼 때 수입육의 큰 폭의 증가는 결국 금년 5월~6월의 돈가 상승에도 결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국내에 공급되는 소와 돼지고기의 총 육류공급량은 월 10만 톤, 연간 120만 톤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수준인데 금년에는 1/4분기에만 수입돈육과 쇠고기의 큰 폭의 증가로 6만5천톤이 초과 공급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5~6월의 출하예정두수 감소분 10% 내외와 국산 돼지고기 냉장육 소비량의 증가분 10~20% 수준을 감안 하더라도 1~2만 톤 수준이라서 전체 시장은 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2007년 5월 전국 주요 도매 시장의 비육돈 지육단가는 4월보다는 강세를 띄지만 전년보다는 많이 하락한 지육 kg당 3,550원을 전후하여 형성될 것으로 보여 4월보다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면 현재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내 돈육시장의 돈가가 국내산 돼지고기의 생산량 증감보다 수입 물량의 증감에 훨씬 커다란 영향을 받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은 향후 돈가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일부에서는 소비의 부진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였다 고 경기 위축과 소비 부진을 탓하기도 하지만 실제 전년 동기 보다 73% 늘어난 쇠고기 수입량과 87% 증가한 돼지고기 수입량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 다음으로 국내산 육류 생산량의 증가이다. 소 도축두수 1/4분기 중 전년 동기보다 7% 증가 하였고 돼지 도축두수는 2.9%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소비 부진 보다는 전체적인 쇠고기생산, 돼지고기 생산량의 증가와 수입 돼지고기와 수입 쇠고기 등의 총 육류 공급 증가가 현재 돼